

울산지역 주부의 녹색식생활지침에 대한 인식 및 실천

하태정·박동연[†]
동국대학교 사범교육대학 가정교육과

Perceptions and Practices for Core Action Message on Green Dietary Life: The Case of Homemakers in Ulsan, Korea

Ha, Tae Jeong · Park, Dong-Yean[†]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Gyeongju, Korea

ABSTRACT

The Ministry for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developed a program called “Core Action Messages for Green Dietary Life”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energy consumption and improve health. This study examines the degree of perceptions and practices with respect to these messages by considering a sample of 245 homemakers in Ulsan, Korea.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questions about perceptions and practices of Core Action Message and its three parts of detailed messages: <Eco-friendly dietary life>, <Healthy Korean style diet>, <Dietary life with gratitude and consideration>. The data were analyzed with cross tabulation analysis, Tukey analysis after ANOVA. The score of agreement to Core Action Message was 4.57(range 1-5). The score of perception about <Eco-friendly dietary lif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age($p<0.01$) and income($p<0.05$). The score of perception about <Healthy Korean style diet> and <Dietary life with gratitude and consideration>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age($p<0.05$). The score of practicing <Eco-friendly dietary lif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age(0.001), education(0.01), housing style($p<0.01$), and region(0.01). The score of practicing <Healthy Korean style die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age($p<0.001$), education(0.05), and region(0.05). The frequency of practices for <Dietary life with gratitude and consideration> was low. As to the results of the study, education on green dietary life must be provided to homemakers, especially young homemakers. Opportunities to experience of farming to appreciate others’ efforts to obtain food should also be provided.

Key words: dietary self-efficacy, social support, depression, weight-control behavior

I. 서론

인간의 삶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요소 중 하나

인 식생활은 계속해서 변화해왔다. 그러나 모든 변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최근 관찰되는 환경적 변화, 가정생활의 변화, 세

접수일: 2014년 11월 1일 심사일: 2014년 12월 19일 게재확정일: 2014년 12월 23일

[†]**Corresponding Author:** Park, Dong Yean Tel: 82-54-770-2267

e-mail: pdy@dongguk.ac.kr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계화 과정에 따른 변화의 양상들은 식생활 전반에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첫째, 90년대부터 경고되었던 지구온난화 가설이 실제로 기후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이 드러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온실가스의 원인이 되는 화석연료는 그 매장량이 고갈되고 있으며,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 뿐 아니라 에너지 자원 절약이라는 측면에서 사용량 감축이 요구되고 있다. 온실가스 감소와 화석연료 절약을 위해 전 세계가 노력을 해 왔지만 그 결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2013)은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 유엔환경개발회의 후 20년이 지난 2012년까지 20년간의 지구환경 변화를 보고하였다. 이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은 1992년에 비해 2008년에는 36% 증가하였고, 지구 평균 기온은 1992년에 비해 2010년 0.4°C 증가하였다. 온실가스의 증가는 식량생산의 양과 질적인 면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온실가스가 야기하는 약간의 기온상승은 식량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고, 새로운 품종을 재배할 수 있게 해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온상승은 잡초 증가, 병충해 증가, 토양 침식 등으로 인해 생산량 감소와 품질 저하라는 부정적 결과를 더 많이 초래한다(Kim et al. 2012). 한편, 식품의 생산과 소비 양식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영향을 미친다. 식량 생산을 위해 농업용 화석연료와 비료를 많이 사용할수록, 식품가공과 포장을 많이 할수록(Heller & Keoleian 2003), 식품이 먼 거리까지 수송될수록(Coley et al. 2009), 육류 소비가 많아질수록, 음식물 쓰레기가 증가할수록 온실가스 배출과 화석연료의 사용이 늘어난다(Garnett 2008).

가정생활의 변화 또한 식생활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핵가족과 독신가정의 증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Statistic Korea 2014)로 인스턴트식품과 가공식품을 자주 사용하게 되었다. 이런 현상은 조리된 편의식품, 반찬의 구입, 외식 등이 증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런 현상은 영양소의 불균형, 나트륨이나 다른 첨가물의 과잉 섭취, 음식 준비와 보관 과정에서의 비위생적인 관리 등 질적으로

저하된 식사가 되기 쉬우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 건강에 커다란 위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Presidential Commission on Agriculture, Fishery and Rural Policies 2007).

세계화 과정에서 대자본 농기업과 식품회사의 출현은 각국의 식량생산과 식품소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식품을 생산하고, 유통, 가공, 판매까지 관장한다(Rosset 2006). 이런 과정에서 맥도날드로 대표되는 패스트푸드, 규격화된 편의식품, 가공식품 등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패스트푸드의 과잉 섭취는 비만, 고혈압, 심혈관질환 등 만성퇴행성질환의 주원인이다. 또한 전 세계인을 획일화된 입맛으로 길들이고 있어 각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식문화 전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패스트푸드는 식재료의 정체가 불분명하고, 조리 과정이 거의 필요 없고, 맛, 형태, 가격 등이 규격화, 표준화 되어 있고, 강한 맛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패스트푸드는 포장지 과대 사용, 일회용 용기 과다 사용 등으로 산림을 황폐화 시키고, 육우 대량 생산으로 인한 물과 사료의 소비 증가, 식품의 장거리 이동, 냉장, 냉동 기구 사용 증가 등으로 인해 에너지의 사용을 증가시키고 있다(Seo 2010).

이에 따라 식생활 분야에서도 식품이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며,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통식문화를 계승 발전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새로운 식생활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런 식생활을 일반 국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식생활지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녹색식생활지침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식생활지침의 성공 여부는 결국 식습관과 식생활의 실제적 변화에 있기에 정부의 지침 제정 못지않게 일반 국민이 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에 따라 본 연구는 국민들의 녹색식생활 지침에 대한 인식 정도와 실천 정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효과적인 녹색식생활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시기

본 연구는 울산지역 주부 300명을 대상으로 2011년 3월~4월 동안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지역 주부 모임에 참석한 주부였으며, 배부된 300부 중 내용이 부실한 55부를 제외한 245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울산광역시는 도시화 된 아파트 단지과 농어촌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도·농간의 지역적인 차이를 볼 수 있는 도시라고 생각되어 선정하였다.

2. 설문지 개발 및 내용

1) 설문지 개발

본 연구가 녹색식생활지침에 대한 인식과 실천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므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연구보고서인 <녹색식생활 지침 개발> 중 제 3과제 ‘녹색식생활실천 지침 개발’(Kim et al. 2010a)과 제7과제 ‘식생활 실태조사 및 녹색식생활 홈페이지 개발’(Kim et al. 2010b)의 내용을 참고로 1차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1차 설문지를 가지고 울산지역 주부 10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영양학 전공 교수와 5차의 토의를 거쳐 문구의 수정, 설문지 구성의 순서와 질문 제시 형태 등을 수정한 후 설문지를 최종 확정하여 본 조사에 이용하였다.

2) 설문지 내용

설문지는 일반적 사항에 대해 질문하는 문항과, 농수산식품부의 녹색식생활지침에 대한 인식과 실천 실태를 조사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녹색식생활지침은 <환경친화적 식생활>에 관련된 3가지, <건강한 한국형 식생활>에 관련된 3가지, <감사하고 배려하는 식생활>에 관련된 2가지 지침 등 총 8가지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른 세부 지침은 총 33가지로, <환경친화적 식생활>에 관련된 13가지, <건강한 한국형 식생활>에 관련된 13가지, <감사하고 배려하는 식생활>에 관련된 7가지 세부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녹색식생활지침에 대한 인식과 실천 실태를 각각 묻는 형식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첫째, 설문지는 먼저 녹색식생활지침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세부지침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즉, 녹색식생활지침인 <환경친화적 식생활>, <건강한 한국형 식생활>, <감사하고 배려하는 식생활>에 관련된 8가지 기본 지침과, 그에 관련된 33가지 세부지침에 대해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이다”,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의 5점 Likert-type 척도로 각각 구성되었다.

둘째, 녹색식생활지침의 실천실태와 그 세부사항에 대한 실천 실태에 대해 묻는 질문은 조금 다르게 구성되었다. 지침 자체는 실천을 물을 수 없는 선언적 문장으로 구성되어 실천 실태를 조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천 실태는 세부지침에 대한 실천 실태만을 조사하였다. <환경친화적 식생활>에 관련된 13가지, <건강한 한국형 식생활>에 관련된 13가지 세부지침에 대한 실천 실태는 5점 Likert-type 척도로 구성되었다. <감사하고 배려하는 식생활> 관련된 7가지 세부지침은 5점 Likert-type 척도로 구성하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빈도조사를 하였다.

3. 조사방법

설문조사는 5~10명의 주부 모임에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고 설문지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조사대상자가 설문지를 작성하는 동안 대상자의 물음에 답하였다. 설문지 배부와 회수, 질의·응답의 편의를 위해 참가자가 10명이 넘지 않는 모임을 택하였다.

4. 통계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Program(version 19.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빈도, 백분율 등의 분석을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녹색식생활지침과 세부지침에 대한 인식, <환경친화적 식생활>에 관련된 세부지침과 <건강한 한국형 식생활>에 관한

세부지침의 실천 실태 등 5점 Likert-type 척도 문항은 1부터 5의 수치를 사용하되 가장 강한 인식 정도와 실천에 5점을 부여, 가장 약한 인식 정도와 실천에 1점을 부여하여 분석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인식과 실천율을 나타낸다. <감사하고 배려하는 식생활> 세부지침의 실천 실태는 빈도,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인식과 실천 실태의 비교는 교차분석과 ANOVA를 실시하였고, 집단 간의 차이를 보기 위해 ANOVA를 한 후 Tukey 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나타나 바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50세 이상이 47.3%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56.7%, 직업은 전업주부가 53.2%로 반 이상이었다. 가족 유형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유형이 68.9%로 가장 높았고 거주 형태는 71.0%가 아파트로 대부분이었다. 거주지는 울산남구 25.7%, 울산북구 22.4%, 울산중구 20.8%, 울산동구 17.6%, 울주군 13.5%로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으며, 월평균 가계소득은 300~399만원 24.5%, 200~299만원 23.7%, 200만원 미만은 18.4%, 500만원 초과는 18.4% 이었고, 400~499만원은 15.1%로 조사되었다.

2. 녹색식생활지침에 대한 동의 및 인식 정도

1) <녹색식생활지침>에 대한 동의 정도

조사대상자가 8가지 <녹색식생활지침>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5점 Likert-type 척도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전체 지침에 대한 동의의 평균 점수는 4.57점(범위 1~5)으로 높은 편이었다. <환경친화적 식생활>, <건강한 한국형 식생활>, <감사하고 배려하는 식생활>인 세 가지 영역의 평균 점수는 각각 4.55점, 4.61점, 4.53점이었다.

<환경친화적 식생활>에 속한 세 가지 지침 중에서는 “알맞은 식사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입니

다.”가 4.7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런 결과는 음식물쓰레기가 실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고, 대중매체를 통해 오랫동안 교육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서울지역 주부 825명을 대상으로 한 음식물쓰레기에 관한 실태를 조사한 Jang et al.(1997)의 연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39.2%가 심각한 환경 문제로 쓰레기 문제를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Variables	N (%)	
Age(y)	≤ 39	64 (26.1)
	40-49	65 (26.5)
	≥ 50	116 (47.3)
	Total	245 (100.0)
Education	≤ High school	139 (56.7)
	Junior college	37 (15.1)
	≥ University	69 (28.2)
	Total	245 (100.0)
Occupation	Homemaker	126 (53.2)
	Office worker	53 (22.4)
	Production worker	40 (16.9)
	Others	18 (7.6)
	Total	237 (100.0)
Family type	Husband and wife	49 (20.3)
	Husband and wife with children	166 (68.9)
	Others	26 (10.8)
	Total	241 (100.0)
Number of family members	≤ 2	69 (28.3)
	3	74 (30.3)
	4	80 (32.8)
	≥ 5	21 (8.6)
Total	244 (100.0)	
Housing style	Apartment	174 (71.0)
	House	37 (15.1)
	Multiplex house	21 (8.6)
	Total	244 (100.0)
Region	Ulsan Nam-gu	63 (25.7)
	Ulsan Jung-gu	51 (20.8)
	Ulsan Dong-gu	43 (17.6)
	Ulsan Buk-gu	55 (22.4)
	Ulju-gun	33 (13.5)
	Total	245 (100.0)
Household income (KRW 10,000/month)	< 200	45 (18.4)
	200-299	58 (23.7)
	300-399	60 (24.5)
	400-499	37 (15.1)
	≥ 500	45 (18.4)
Total	245 (100.0)	

Table 2. Agreement for Core Action Messages for green dietary life

Areas	Message	M±SD
Eco-friendly dietary life	Eco-friendly agrifood products keep me and the world healthy.	4.54±0.67
	Proper amounts of meals reduce food waste..	4.75±0.50
	Consumption of agro-fishery products within a short distance facilitates green growth by reducing energy consumption.	4.37±0.69
	Mean	4.55±0.50
Healthy Korean style diet	Wide variety and reasonable amounts of meals keep me healthy.	4.78±0.52
	A rice-based Korean traditional diet makes me healthy.	4.40±0.75
	A family meal leads to a good life.	4.67±0.55
	Mean	4.61±0.48
Dietary life with gratitude and consideration	Various dietary experiencess make ther body and mind healthy.	4.54±0.63
	Food should be treated as valuable and food producers should be appreciated.	4.52±0.66
	Mean	4.53±0.59
Mean		4.57±0.43

A five point Likert-type scale ranging from “completely disagree” (1) to “completely agree” (5)

뽑았고, 가정쓰레기중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비율이 가장 높아 음식물쓰레기는 쓰레기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과제로 지적하였다. 또한 조사 대상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것이고,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 생활 태도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 결과와 Jang et al.(1997)의 연구 결과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주부들이 쓰레기 문제를 중요한 환경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부분은 동일하다고 생각된다.

“알맞은 식사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입니다.” 다음으로 “환경친화적인 농식품은 나와 지구의 건강을 지킵니다.”는 4.54점을 획득했으며 “근거리 농수산물 소비는 에너지를 줄여 녹색 성장을 이끍니다.”는 4.37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자들은 음식물쓰레기가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잘 인식하고 있었지만 친환경 농식품과 근거리 농수산물의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보다 인식 정도가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앞으로 친환경농산물과 근거리 농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이며 체계적으로 교육 및 홍보해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건강한 한국형 식생활> 의 세 가지 지침 중 “골고루 먹는 알맞은 식사는 내 건강을 지킨다.”는 4.78점으로 평균보다 높았으나, “밥 중심의 전통식 생활은 내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는 4.40점으로 평균보다 낮았다. 이는 최근 몇 년 전부터 확산된 우리나라의 웰빙 열풍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먹는 식사가 건강한 식생활이라는 인식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된다(Park & You 2007). 반면 밥 중심의 한국형 식 생활은 동식물성 식품의 적절한 비율로 구성되며, 영양적으로 우수할 뿐만 아니라 전통 식문화의 계승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는 가장 낮은 동의 수준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다.

<감사하고 배려하는 식생활>은 4.53점의 평균 점수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높은 점수이기는 하나, 세 부분의 지침 중에서는 가장 낮았다. 그러므로 앞으로 다양한 식생활 체험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인식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음식의 소중함이나 생산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더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농어촌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환경친화적인 식생활> 세부지침에 대한 인식

<환경친화적인 식생활>에 대한 세부지침은 총 13개의 지침이 있으며 이들 지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를 나타낸 것은 <표 3>과 같다. 총 13가지 세부지침의 인식 수준은 평균점수가 약 4.41점(범위 1~5)으로 높은 편이었다.

<환경친화적 식생활> 관련 세부지침 중에는 “필요한 양만큼 구입하기”가 4.60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원산지 표시 확인하기”, “먹을 만큼 조리하기”, “과대 포장된 식품 구입 줄이기”가 4.57점 이상으로 다른 지침에 비해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였다. 반면 “유기가공식품 이용하기”와 “직거래 장터 이용하기”가 4.19점으로 다른 지침에 비해 비교적 낮은 인식을 보였고, “외식 시 남은 음식 가져가기”가 3.85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조사대상자들은 필요한 만큼의 식품을 구입하고, 과대포장 안한 식품을 구입하는 것은 폐기물을 줄여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한 반면 유기가공식품과 직거래 장터 이용에 대한 인식 점수는 낮았다. 이런 결과는 조사대상자들이 유기가공식품과 직거래 장터 이용이 환경을 생각하기보다 가격적인 면을 생각하여 식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3) <건강한 한국형 식생활> 세부지침에 대한 인식

<건강한 한국형 식생활>에 대한 세부지침은 총 13개의 지침이 있으며 이들 지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를 나타낸 것은 <표 4>와 같다. 총 13가지 세부지침의 인식 수준은 평균점수 약 4.37점(범위 1~5)으로 높은 편이었다. 세부지침 중에서 “행

Table 3. Perceptions of detailed messages about eco-friendly dietary life

Message for eco-friendly dietary life	Detailed message	M±SD
Eco-friendly agrifood products keeps me and the world healthy.	Check the certification of eco-friendly food products on food labels.	4.37±0.69
	Use organically processed food products.	4.19±0.71
	Use agricultural food products sprayed with less pesticide and fertilizer.	4.47±0.69
	Avoid food products in disposable packages.	4.51±0.66
Proper amounts of meal reduce food waste.	Avoid over-packaged food products.	4.57±0.62
	Buy only those food products you need.	4.60±0.59
	Cook only as much as you eat.	4.57±0.61
	Order food only as much as you can eat when dining out.	4.55±0.62
Consumption of agro-fishery products within a short distance facilitates green growth by reducing energy consumption.	Take leftovers food home when dining out.	3.85±1.00
	Take a portion of food when you eat.	4.43±0.67
	Shop at farmers' markets.	4.19±0.84
	Check the certificate of origin.	4.58±0.62
	Use agricultural fishery products grown locally.	4.49±0.66
Mean		4.41±0.45

A five-point Likert-type scale ranging from “completely disagree” (1) to “completely agree”(5).

복한 마음으로 식사하기”가 4.5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고지방 고기음식 줄이기”는 4.27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그러나 13가지의 모든 지침이 4.3~4.5 사이에 분포되어 비교적 고른 인식 정도를 나타냈다.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수준의 상승으로 육류의 섭취 기회가 많아졌고, 그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는 비만 인구나 만성퇴행성질환의 유병률이 증가

하고 있다. 이러한 건강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고지방 고기음식 줄이기”가 가장 낮은 인식 수준을 보인 것은 주부의 개인적인 기호가 이러한 식품의 섭취에 대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Park & You 2007). 그러므로 앞으로 지방의 과다 섭취와 건강과의 관련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4. Perceptions of detailed message about a healthy Korean style diet

Message about healthy Korean style diet	Detailed message	M±SD
Wide variety and reasonable amounts of meals keep me healthy.	Have three meals a day regularly.	4.30±0.79
	Include vegetables, fruits, legumes, meat, fish in the diet.	4.39±0.71
	Reduce high-fat meat.	4.27±0.79
	Reduce fried foods.	4.38±0.70
	Maintain healthy weight.	4.47±0.66
A rice-based Korean traditional diet makes me healthy.	Eat a balanced diet with rice and a broad variety of side dishes.	4.39±0.67
	Eat a wide variety unpolished grains.	4.34±0.70
	Avoid salty and spicy foods.	4.44±0.70
	Enjoy seasonal food.	4.41±0.71
A family meal leads to a good life.	Have a meal with family more than once a day.	4.31±0.76
	Have a meal while happy.	4.52±0.63
	Have good manners at the dining table.	4.36±0.73
	Have leisurely meals.	4.37±0.70
Mean		4.37±0.47

A five-point Likert-type scale ranging from “completely disagree” (1) to “completely agree”(5).

Table 5. Perceptions of detailed messages about dietary life with gratitude and consideration

Message about dietary life with gratitude and consideration	Detailed message	M±SD
Various dietary experiences make the body and mind healthy.	Enjoy cooking with family.	4.02±0.82
	Have opportunities to experience traditional food culture.	3.77±0.82
	Use Korea’s traditional recipes.	3.94±0.83
Food should be treated as valuable and food producers should be appreciated.	Grow vegetables in the kitchen garden or plant pots.	3.82±0.90
	Learn the value of food and farmer's labor by experiencing farming and fishing.	4.13±0.75
	Know the food production process.	4.13±0.74
	Share food with needy neighbors.	4.15±0.70
Mean		3.99±0.59

A five-point Likert-type scale ranging from “completely disagree” (1) to “completely agree”(5).

Table 6. Differences in perception about Core Action Message by demographic variables

Variables	Total	Eco-friendly	Korean-style diet	Gratitude and consideration
Age(y)				
≤ 39	4.49±0.51	4.30±0.51 ^a	4.30±0.52 ^a	4.00±0.59 ^{ab}
40-49	4.53±0.41	4.34±0.49 ^{ab}	4.31±0.48 ^a	3.84±0.57 ^a
≥ 50	4.63±0.39	4.50±0.39 ^b	4.45±0.43 ^a	4.07±0.61 ^b
F-value	2.591	5.160**	3.072*	3.217*
Education				
≤ High school	4.59±0.41	4.44±0.42	4.38±0.45	4.00±0.59
Junior college	4.57±0.43	4.34±0.60	4.26±0.55	3.97±0.69
≥ University	4.52±0.48	4.37±0.45	4.42±0.48	3.99±0.55
F-value	0.598	1.076	1.433	0.025
Occupation				
Homemaker	4.53±0.45	4.45±0.43	4.39±0.48	4.04±0.62
Office worker	4.53±0.41	4.33±0.49	4.30±0.47	3.81±0.55
Production worker	4.65±0.44	4.37±0.51	4.37±0.52	4.02±0.60
Others	4.71±0.34	4.38±0.43	4.48±0.35	4.14±0.56
F-value	1.595	0.908	0.693	2.330
Family type				
Husband and wife	4.55±0.45	4.42±0.47	4.29±0.51	4.03±0.57
Husband and wife with children	4.59±0.41	4.41±0.45	4.40±0.46	3.99±0.60
Others	4.54±0.46	4.38±0.48	4.32±0.50	3.87±0.52
F-value	0.268	0.077	1.157	0.634
Number of family members				
≤ 2	4.58±0.43	4.40±0.48	4.34±0.49	4.01±0.61
3	4.51±0.46	4.37±0.47	4.37±0.46	3.91±0.65
4	4.57±0.43	4.41±0.46	4.35±0.48	4.01±0.54
≥ 5	4.69±0.35	4.50±0.37	4.54±0.44	4.10±0.56
F-value	0.998	0.386	0.975	0.827
Housing style				
Apartment	4.55±0.45	4.38±0.47	4.35±0.49	3.95±0.62
House	4.67±0.33	4.49±0.37	4.45±0.42	4.15±0.48
Multiplex house	4.53±0.44	4.46±0.45	4.43±0.43	4.01±0.55
F-value	1.413	1.147	0.962	1.625
Region				
Ulsan Nam-gu	4.59±0.43	4.47±0.42	4.45±0.43	4.04±0.56
Ulsan Jung-gu	4.64±0.40	4.46±0.47	4.40±0.45	3.88±0.60
Ulsan Dong-gu	4.53±0.47	4.26±0.55	4.22±0.56	3.84±0.74
Ulsan Buk-gu	4.55±0.47	4.40±0.45	4.38±0.51	4.14±0.51
Ulju-gun	4.50±0.36	4.40±0.36	4.40±0.36	4.03±0.54
F-value	0.679	1.618	1.597	2.238
Household income(KRW 10,000/m)				
< 200	4.65±0.38	4.53±0.48 ^b	4.42±0.53	4.11±0.60
200-299	4.57±0.40	4.49±0.38 ^{ab}	4.33±0.42	3.99±0.62
300-399	4.52±0.48	4.32±0.52 ^{ab}	4.35±0.49	3.95±0.58
400-499	4.51±0.48	4.26±0.40 ^a	4.35±0.50	3.79±0.54
≥ 500	4.60±0.42	4.42±0.44 ^{ab}	4.46±0.45	4.09±0.61
F-value	0.880	2.868*	0.676	1.971
Total	4.57±0.43 ¹⁾	4.41±0.45	4.37±0.47	3.99±0.59

1) M±SD, A five-point Likert-type scale ranging from “completely disagree” (1) to “completely agree”(5).

* p<0.05 ** p<0.01; Numbers in columns with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based on the Tukey test.

4) <감사하고 배려하는 식생활> 세부지침에 대한 인식

<감사하고 배려하는 식생활>에 대한 세부지침은 총 7개의 지침이 있으며 이들 지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를 나타낸 것은 <표 5>와 같다. 총 7가지 세부지침의 인식 수준은 평균점수 약 3.99 점(범위 1~5)이었다. 앞의 <환경친화적인 식생활>과 <건강한 한국형 식생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 정도를 보였다.

세부지침 중에는 “어려운 이웃과 음식 나누기”가 4.1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농어촌 체험으로 음식과 땅의 가치 알기”와 “먹을거리의 생산과정 알기”가 4.13으로 다른 지침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 반면 “한국의 전통 조리법 계승하기”, “텃밭과 화분 등에 채소 기르기”, “전통 식생활 문화 체험 기회 갖기”가 평균 이하의 점수를 나타냈다.

한국의 전통 조리법 계승과 식문화 체험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은 한국 전통조리나 식문화가 생활을 풍부하게 한다기보다는 시간을 많이 소모하고, 조리 과정이 복잡하고, 노동이 많이 드는 일로 인식되기 때문에 꺼려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5)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녹색식생활지침에 대한 인식의 차이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녹색식생활지침과 세부지침에 대한 인식 정도의 차이를 조사하였고 <표 6>에 제시하였다. <녹색식생활지침>은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환경친화적인 식생활>은 조사대상자의 연령($p<0.01$)과 월소득($p<0.05$)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이 50세 이상인 주부가 39세 이하인 주부보다, 조사대상자의 월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주부가 400~499만원인 주부보다 인식 수준이 높았다. 또한 <건강한 한국형 식생활>은 조사대상자의 연령($p<0.05$)에서 유의적이었지만, 집단 간의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고, <감사하고 배려하는 식생활>은 조사대상자의 연령이 50세 이상인 주부가 40~49세인 주부보다 인식 수준이 높았다($p<0.05$). 본 연구 결과 50세 이상 주부가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 <건강한 한국형 식생활>, <감사하고 배려하는 식생활>의 인식이 다른 연령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

Table 7. Practices for detailed messages about eco-friendly dietary life

Message for eco-friendly dietary life	Detailed message	M±SD
Eco-friendly agrifood products keep me and the world healthy.	Check the certification of eco-friendly food products on food label.	3.74±0.90
	Use organically processed food products.	3.57±0.87
	Use agricultural food products sprayed with less pesticides and fertilizer.	3.89±0.93
	Avoid food products in disposable packages.	3.90±0.96
Proper amounts of meals reduce food waste.	Avoid food products in disposable packages.	4.09±0.86
	Buy only those food products you need.	4.20±0.80
	Cook only as much as you eat.	4.10±0.81
	Order food only as much as you can eat when dining out.	4.20±0.79
	Take leftovers food home when dining out.	3.10±1.20
Consumption of agro-fishery products within a short distance facilitates green growth by reducing energy consumption.	Take a portion of food when you eat.	4.00±0.93
	Shop at farmers' market.	3.59±1.11
	Check the certificate of origin.	4.29±0.80
	Use agricultural/fishery products grown locally.	4.02±0.91
Mean		3.89±0.63

A five-point Likert-type scale ranging from “completely disagree” (1) to “completely agree”(5).

3. 녹색식생활 세부지침에 대한 실천

1) <환경친화적인 식생활> 세부지침에 대한 실천

<환경친화적인 식생활> 세부지침에 대한 실천 정도를 나타낸 것은 <표 7>과 같다. 세부지침 중에는 “원산지 표시 확인하기”가 4.29점, “필요한 양만큼 구입하기”가 4.20점, “외식 시 먹을 만큼 알맞게 주문하기”가 4.20점으로 높았던 반면 “외식 시 남은 음식 가져가기”가 3.10점으로 실천율이 가장 떨어졌다.

울산지 주부와 조리사를 대상으로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을 비교한 Seo et al.(2000)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과시소비적인 음식문화로 인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크다고 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외식 시 남은 음식 가져가는 것과 비교하여 말할 수 있는데, 과시소비적인 음식문화로 식당 등에서는 음식은 많이 차리지만 손님은 남은 음식을 가져가지 않아 음식물쓰레기량이 증가한다. 이것은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보다는 음식문화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환경을 생각하는 환경친화

적인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건강한 한국형 식생활> 세부지침에 대한 실천 정도

<건강한 한국형 식생활>의 실천 정도를 나타낸 것은 <표 8>와 같다. “행복한 마음으로 식사하기”가 4.16점, “계절에 따른 제철 음식 즐기기”가 4.16점으로 높은 실천을 보였고, 반면에 “고기지방 고기 음식 줄이기”가 3.87점, “하루 세끼 규칙적으로 식사하기”가 3.84점, “채소, 과일, 유제품, 콩 제품, 생선 골고루 섭취하기”가 3.84점으로 낮은 실천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주부의 경제 활동 증가로 외식을 하는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사실상 식사에서 가족과 함께, 밥 중심의 한국 전통 식사,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식사 등의 개념은 점점 약화되고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빵, 시리얼 등 서구적인 간편한 식사가 시간을 절약하고 편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8. Practices for detailed messages about a healthy Korean-style diet

Message about healthy Korean style diet	Detailed message	M±SD
Wide variety and resonable amounts of meals keep me healthy.	Have three meals a day regularly.	3.84±1.05
	Include vegetables, fruits, legumes, meat, fish in the diet.	3.84±0.82
	Reduce high-fat meat.	3.87±0.87
	Reduce fried foods.	4.03±0.80
	Maintain healthy weight.	3.95±0.97
A rice-based Korean traditional diet makes me healthy.	Eat a balanced diet with rice and broad variety of side dishes.	3.93±0.84
	Eat a wide variety of unpolished grains.	4.00±0.91
	Avoid salty and spicy hot foods.	4.06±0.94
A family meal leads to a good life.	Enjoy seasonal food.	4.16±0.81
	Have a meal with family more than once a day.	3.93±1.02
	Have a meal while happy.	4.16±0.83
	Have good manners at the dining table.	4.05±0.85
	Have leisurely meals.	3.93±0.95
Mean		3.97±0.61

A five-point Likert-type scale ranging from “completely disagree” (1) to “completely agree”(5).

Table 9. Practices for detailed message about eco-friendly life and a Korean style diet by demographic variables

Variables	Eco-friendly	Korean style diet
Age(y)		
≤ 39	3.61±0.61 ^a	3.70±0.62 ^a
40-49	3.76±0.67 ^a	3.91±0.60 ^a
≥ 50	4.11±0.63 ^b	4.16±0.55 ^b
F-value	15.601***	12.796***
Education		
≤ High school	4.00±0.59 ^b	4.05±0.60 ^a
Junior college	3.79±0.65 ^{ab}	3.86±0.60 ^a
≥ University	3.71±0.67 ^a	3.86±0.62 ^a
F-value	5.291**	3.121*
Occupation		
Homemaker	3.98±0.57 ^a	4.07±0.51 ^a
Office worker	3.68±0.61 ^a	3.76±0.70 ^a
Production worker	3.83±0.78 ^a	3.91±0.68 ^a
Others	3.88±0.57 ^a	4.05±0.59 ^a
F-value	2.858*	3.748*
Family type		
Husband and wife	3.91±0.69	3.92±0.62
Husband and wife with children	3.87±0.60	3.98±0.57
Others	3.96±0.67	3.95±0.81
F-value	0.252	0.151
Number of family members		
≤ 2	3.92±0.64	3.93±0.63
3	3.89±0.64	4.00±0.61
4	3.85±0.60	3.92±0.57
≥ 5	3.88±0.77	4.09±0.71
F-value	0.125	0.576
Housing style		
Apartment	3.83±0.64 ^a	3.97±0.59
House	4.21±0.57 ^b	4.08±0.67
Multiplex house	3.86±0.60 ^a	3.81±0.66
F-value	5.228**	1.641
Region		
Ulsan Nam-gu	4.06±0.64 ^b	4.03±0.67 ^{ab}
Ulsan Jung-gu	3.80±0.61 ^{ab}	3.93±0.56 ^{ab}
Ulsan Dong-gu	3.59±0.55 ^a	3.71±0.66 ^a
Ulsan Buk-gu	3.92±0.69 ^{ab}	4.05±0.60 ^{ab}
Ulju-gun	4.04±0.53 ^b	4.11±0.44 ^b
F-value	4.304**	2.951*
Household income(KRW 10,000/m)		
< 200	3.98±0.59	4.08±0.60
200-299	3.93±0.54	3.86±0.55
300-399	3.87±0.72	3.91±0.67
400-499	3.69±0.66	3.91±0.67
≥ 500	3.92±0.65	4.12±0.55
F-value	1.275	1.709
Total	3.89±0.63 ¹⁾	3.97±0.61 ¹⁾

1) M±SD, A five-point Likert-type scale ranging from “completely disagree” (1) to “completely agree”(5).

* p<0.05 ** p<0.01, *** p<0.001; Numbers in columns with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based on the Tukey test.

3)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실천 정도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과 <건강한 한국형 식생활>의 실천 정도의 차이는 <표 9>와 같다. <환경친화적인 식생활>은 조사대상자의 연령이 50세 이상인 주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p<0.001$),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주부가 대학교 졸업 이상인 주부보다($p<0.01$), 직업에서는 유의적이었지만, 집단 간의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p<0.05$). 거주형태가 단독주택인 주부가 다른 거주형태에 비해($p<0.01$), 거주지가 남구인 주부와 울주군인 주부가 동구인 주부보다 실천 수준이 높았다($p<0.01$). <건강한 한국형 식생활>은 조사대상자의 연령이 50세 이상인 주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p<0.001$), 학력과 직업은 유의적이었지만, 집단 간의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p<0.05$). 거주지가 울주군인 주부가 동구인 주부보다 실천 수준이 높았다($p<0.05$).

본 연구결과 환경과 건강에 대해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단독주택이며, 농촌지역일수록 실천수준이 높았다. 이는 50대 주부들은 70년대 성장기에 밥 중심의 전통식사 위주의 식생활을 하였고, 어릴 때 확립된 식습관으로 인해 전통식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단독주택과 농촌지역은 아파트 지역보다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을 실천하기에 더 적합한 곳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Korea Institute of Marketing 1992).

4) <감사하고 배려하는 식생활> 세부지침의 실천

(1) 가족과 함께 조리하는 빈도

조사대상자가 가족과 함께 얼마나 자주 음식을 만드는 지에 대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35.5%는 “거의 만들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고, “일주일에 2~3번 이상”이 26.1%이었다. 이는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경제 활동으로 인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라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전통식생활, 텃밭, 농어촌 체험의 경험

전통식생활, 텃밭, 농어촌체험을 경험한 적이 있는 정도를 나타낸 것은 <표 11>과 같다. <전통식생활 문화 체험>은 체험을 경험한 적이 있는 주부가 약 45%, <텃밭 체험>을 경험한 주부는 약 44%, <농어촌 체험>을 경험한 주부는 약 47%로 대체적으로 약 45%의 주부는 체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Lee et al.(2011)의 연구에 의하면 체험형 농가맛집의 방문객 중 57.2%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농가맛집을 방문하는데 이들 중 4회 이상 방문하는 경우는 6.3%에 불과하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에게 농가체험의 기회를 더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유능한 강사의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의한 체험의 차이를 보면, <전통 식생활 문화 체험>, <텃밭 체험>, <농어촌 체험>은 모두 연령, 거주형태, 거주지에 따라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었다. <전통 식생활 문화 체험>은 연령이 50세 이상인 주부가 약 62%로 49세 이하인 주부에 비해 높았고($p<0.001$), 거주형태는 다세대 주택이 약 53%로 다른 거주형태에 비해 높았고($p<0.001$), 거주지는 울주군이 약 79%로 다른 지역에 비해 경험한 정도가 높았다($p<0.001$).

<텃밭 체험>은 연령이 50세 이상인 주부가 약 56%로 49세 이하인 주부에 비해 높았고($p<0.01$), 거주형태는 단독 주택인 경우 약 68%로 가장 높았지만 다세대 주택 또한 약 59%로 높은 편이었다($p<0.001$). 거주지는 울주군이 약 70%로 다른 지역에 비해 경험한 정도가 월등히 높았다($p<0.01$). <농어촌 체험>은 연령이 50세 이상인 주부가 약 56%로 49세 이하인 주부에 비해 높았고($p<0.001$), 거주형태는 단독 주택인 경우 약 65%로 가장 높았지만 다세대 주택 또한 약 56%로 높은 편이었다($p<0.05$). 거주지는 울주군이 약 61%로 가장 높았고, 울산 남구와 북구가 각각 약 54%와 약 51%로 높은 편이었다($p<0.05$).

본 연구 결과 각각의 체험에 대하여 동일한 변수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각각의 체험은 연령이 50세 이상인 주부의 경험 정도가 다른 연령에 비해 높았는데 이는 50세 이상 주부는 울산시가 도시화되기 전 농

Table 10. Cooking with family based on demographic variables

Variables	≥ 2~3 times/week	2~4 times/month	≤ 1/month	Hardly ever	Total
Age(y)					
≤ 39	17 (26.6)	10 (15.6)	17 (26.6)	20 (31.3)	3.267 ¹⁾
40-49	14 (21.5)	10 (15.4)	18 (27.7)	23 (35.4)	
≥ 50	33 (28.4)	11 (9.5)	28 (24.1)	44 (37.9)	
Education					
≤ High school	33 (23.7)	17 (12.2)	34 (24.5)	55 (39.6)	7.983
Junior college	8 (21.6)	4 (10.8)	15 (40.5)	10 (27.0)	
≥ University	23 (33.3)	10 (14.5)	14 (20.3)	22 (31.9)	
Occupation					
Homemaker	33 (26.2)	15 (11.9)	29 (23.0)	49 (38.9)	5.983
Office worker	15 (28.3)	10 (18.9)	14 (26.4)	14 (26.4)	
Production worke	11 (27.5)	3 (7.5)	12 (30.0)	14 (35.0)	
Others	3 (16.7)	2 (11.1)	5 (27.8)	8 (44.4)	
Family type					
Husband and wife	17 (34.7)	7 (14.3)	7 (14.3)	18 (36.7)	5.878
Husband and wife with children	41 (24.7)	21 (12.7)	47 (28.3)	57 (34.3)	
Others	6 (23.1)	2 (7.7)	9 (34.6)	9 (34.6)	
Number of family members					
≤ 2	17 (24.6)	10 (14.5)	12 (17.4)	30 (43.5)	10.578
3	21 (28.4)	9 (12.2)	24 (32.4)	20 (27.0)	
4	20 (25.0)	12 (12.5)	22 (27.5)	26 (32.5)	
≥ 5	6 (28.6)	0 (0.0)	5 (23.8)	10 (47.6)	
Housing style					
Apartmen	46 (26.4)	20 (11.5)	41 (23.6)	67 (35.5)	4.160
House	9 (24.3)	6 (16.2)	13 (35.1)	9 (24.3)	
Multiplex house	9 (26.5)	5 (14.7)	9 (26.5)	11 (32.4)	
Region					
Ulsan Nam-gu	15 (23.8)	11 (17.5)	10 (15.9)	27 (42.9)	11.034
Ulsan Jung-gu	13 (25.5)	6 (11.8)	11 (21.6)	21 (41.2)	
Ulsan Dong-gu	11 (25.6)	4 (9.3)	12 (27.9)	16 (37.2)	
Ulsan Buk-gu	16 (29.1)	6 (10.9)	18 (32.7)	15 (27.3)	
Ulju-gun	9 (27.3)	4 (12.1)	12 (36.4)	8 (24.2)	
Household income(KRW 10,000/m)					
< 200	15 (33.3)	5 (11.1)	9 (20.0)	16 (35.6)	9.485
200-299	14 (24.1)	6 (10.3)	21 (36.2)	17 (29.3)	
300-399	13 (21.7)	11 (18.3)	15 (25.0)	21 (35.0)	
400-499	8 (21.6)	4 (10.8)	8 (21.6)	17 (45.9)	
≥ 500	14 (31.1)	5 (11.1)	10 (22.2)	16 (35.6)	
Total	64 (26.1)	31 (12.7)	63 (25.7)	87 (35.5)	245 (100)

1) X²-test

Table 11. Traditional food culture, gardening experiences, and farming village experiences based on demographic variables

Variables		Food culture experience	Gardening experience	Farming village experience
Age(y)	≤ 39	20 (31.3)	22 (34.4)	23 (35.9)
	40-49	19 (29.2)	21 (32.3)	22 (33.8)
	≥ 50	72 (62.1)	65 (56.0)	69 (59.5)
	χ^2	25.035***	12.825**	14.912***
Education	≤ High school	71 (51.1)	69 (49.6)	71 (51.1)
	Junior college	13 (35.1)	16 (43.2)	17 (45.9)
	≥ University	27 (39.1)	23 (33.3)	26 (37.7)
	χ^2	4.476	4.987	3.333
Occupation	Homemaker	62 (49.2)	60 (47.6)	65 (51.6)
	Office worker	19 (35.8)	17 (32.1)	22 (41.5)
	Production worke	21 (52.5)	20 (50.0)	17 (42.5)
	Others	8 (44.4)	7 (38.9)	9 (50.0)
	χ^2	3.397	4.505	2.049
Family type	Husband and wife	24 (49.0)	26 (53.1)	26 (53.1)
	Husband and wife with children	73 (44.0)	69 (41.6)	78 (47.0)
	Others	11 (42.3)	12 (46.2)	9 (34.6)
	χ^2	0.457	2.061	2.323
Number of family members	≤ 2	32 (46.4)	33 (47.8)	34 (49.3)
	3	32 (43.2)	28 (37.8)	30 (40.5)
	4	34 (42.5)	34 (42.5)	36 (45.0)
	≥ 5	12 (57.1)	12 (57.1)	13 (61.9)
	χ^2	1.597	3.096	3.344
Housing style	Apartmen	67 (38.5)	63 (36.2)	71 (40.8)
	House	26 (39.2)	25 (67.6)	24 (64.9)
	Multiplex house	18 (52.9)	20 (58.8)	19 (55.9)
	χ^2	13.353***	15.654***	8.487*
Region	Ulsan Nam-gu	30 (47.6)	30 (47.6)	34 (54.0)
	Ulsan Jung-gu	20 (39.2)	21 (41.2)	18 (35.3)
	Ulsan Dong-gu	9 (20.9)	11 (25.6)	14 (32.6)
	Ulsan Buk-gu	26 (47.3)	23 (41.8)	28 (50.9)
	Ulju-gun	26 (78.8)	23 (69.7)	20 (60.6)
	χ^2	26.225***	15.363**	10.415*
Household income (KRW 10,000/m)	< 200	23 (51.1)	24 (53.3)	24 (53.3)
	200-299	32 (55.2)	26 (44.8)	34 (58.6)
	300-399	18 (30.0)	26 (43.8)	24 (40.0)
	400-499	18 (48.6)	14 (37.8)	13 (35.1)
	≥ 500	20 (44.4)	18 (40.0)	19 (42.2)
	χ^2	8.743	2.479	7.540
Total		111 (45.3)	108 (44.1)	114 (46.5)

* p<0.05 ** p<0.01 *** p<0.01, Numbers of homemaker with experience (%)

촌 거주자의 경험이나 텃밭 가꾸기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또한 주거형태로 볼 때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은 채소 기르기를 할 수 있는 주거적인 공간이 아파트에 비해 많기 때문에 텃밭 체험의 경험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울주군은 광역시에 귀속된 농촌지역이기에 다른 지역에 비해 체험의 기회가 높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로 보면 공통적으로 49세 이하 주부가 경험이 낮은 것으로 볼 때 이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체험을 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IV. 요약 및 결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지구 환경 변화, 에너지와 자원의 고갈, 가정생활 양상의 변화, 농업 생산과 소비 환경의 변화, 세계화 과정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녹색식생활지침을 개발하였다. 정부의 지침 제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실생활 속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는 녹색식생활지침에 대한 인식과 실천일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녹색식생활지침과 세부 지침의 인식 및 실천 정도를 조사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울산지역 주부 245명이었으며, 조사방법은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2011년 4월에 실시하였다.

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들의 연령이 약 47%가 50세 이상이었다. 학력은 전문대학 졸업 이상이 약 43%, 직업은 전업주부가 약 53%로 대부분이었다. 거주 형태는 약 71%가 아파트로 가장 많았다.
2. 녹색식생활지침과 3가지 세부지침의 인식 수준은 매우 높은 편이었다. <환경친화적인 식생활>, <건강한 한국형 식생활>, <감사하고 배려하는 식생활>의 경우 각각 연령($p < 0.05$)에서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
3. <환경친화적인 식생활>과 <건강한 한국형 식생활>의 실천 수준은 인식 수준보다 낮았다. 실천 정도는 <환경친화적인 식생활>의 경우 연령($p < 0.001$), 학력($p < 0.01$), 거주형태($p < 0.01$), 거주지($p < 0.01$)에서 유의적 차이를 보였고, <건강한 한국

형 식생활>은 연령($p < 0.001$), 거주지($p < 0.05$)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5. <감사하고 배려하는 식생활> 세부지침의 실천 정도에서 가족과 함께 조리하는 빈도는 대체로 낮은 편이었고, <전통 식생활 문화 체험>, <텃밭 체험>, <농어촌 체험>을 경험 정도는 약 45%는 체험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의한 결과 3가지 체험의 경우 연령, 거주형태, 거주지에 따라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보면 주부를 대상으로 녹색식생활지침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40세 이하 젊은 주부, 직장인,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녹색식생활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농어촌 체험, 텃밭 체험 등 농어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체험마을, 체험기관 등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홍보를 통해 농산물 직거래나 지역 농산물의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세부지침에 비해 <감사하고 배려하는 식생활>지침에 대해 낮은 인식과 실천을 보였기에 이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외식업체 등에서의 식단 간소화와 남은 음식 가져가기 등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또한 식사예절,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의 중요성, 타인을 배려한 식사 등 식품의 생산부터 음식이 상에 오르기 까지 수고한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고 배려할 줄 아는 태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References

Coley D, Howard M, Winter M(2009) Local food, food miles and carbon emissions: A comparison of farm shop and mass distribution approaches. Food Policy 34(2), 150-155

Garnett T(2008) Cooking up a storm; food,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our changing climate. Centre for Environmental Strategy, University of Surrey

Heller MC, Keoleian GA(2003) Assessing the sustainability of the US food system: a life cycle perspective. Agr Syst 76(3), 1007-1041

Jang W, Kim M, Kang C, Park Y(1997) Analysis of citizen's attitude to the food waste(I). J KOWREC 5(1), 43-52

- Kim CH, Jeong HK, Han SH, Kim JS, Moon DH(2012) Impacts and countermeasures of Climate Change on Food Supply in Korea. Research report R663,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Kim J, Kwon S, Lee DH, Lee JS, Nam HK(2010b) Survey on dietary life and development of homepage for green dietary life. Research report of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 Kim JH, Park DY, Sohn CM, Choi KS, Kim HS (2010a) Development of core action message of green dietary life. Research report of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 Korea Institute of Marketing(1992) : Housewives' dietary life style and food consumption behavior in city. Research report, 98-100
- Lee JY, Choe JS, Park YH, Kim EM(2011) A study on visitor's experiences, perception and satisfaction when dining in a farm styled restaurant. Korean J Community Living Sci 22(4), 689-704
- Park S, You SY(2007) A study of the effect of health motivation and environmental concern on choosing organic food. J Consum Culture 10(4), 107-126
- Presidential Commission on Agriculture, Fishery and Rural Policies(2007) A basic study on enactment of 'dietary life education law', pp29-31
- Rosset PM(2006) Food is different: Why We Must Get the WTO Out of Agriculture. Zed Books Ltd., London, UK, pp16-52
- Seo HS(2010) Food Chain and Environment (Health) Problems-Focused on Michael Pollan's The Omnivore's Dilemma-. Philosophy of Medicine
- Seo JH, Hong SM, Yu KH, Hwang HJ, Yeum SK, Kim HJ, Yang JA, Seo YE(2000) Pro-environmental food consumption behavior : comparison of housekeeper and cook. J Korean Sci Food Sci Nutr 29(6), 1155-1161
- Statistic Korea(2014) <http://www.kostat.go.kr/portal/korea/>
-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2013) : Keeping Track of Our Changing Environment(From Rio to Rio+20). Nairobi, pp21-29
- Vogt Yuan AS(2010) Body perceptions, weight control behavior, and changes in adolescents' psychological well-being over time: A longitudinal examination of gender. J Youth Adolesc 39, 927-939
- White DA(2013) Parental influences on child weight loss: Perception, willingness to change, and barriers. doctoral dissertation, Pittsburgh University
- Wu YP, Reiter-Purtill J, Zeller MH(2014) The role of social support for promoting quality of life among persistently obese adolescents: importance of support in schools. J Sch Health 84(2), 90-105
- Yu NS(2011) A study on perceived weight, eating habits, and unhealthy weight control behavior in Korean adolescents. Fam Environ Res 12(2), 13-24
- Zimet GD, Dahlem NW, Zimet SG, Farley GK(1988)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 Pers Assess 52(1), 30-41